

**과학기술계 인사 참여정부 입각 및 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 개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金始中)는 지난 6월 22일(화) 오후 5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계 인사 중 '참여정부' 입각과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4명의 인사, 들을 초청 축하연을 개최했다.

과총 임원·지역연합회장·과학기술 관련 학회장·정부출연연구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축하연에서는 과학기술인 모두의 뜻을 담은 축하패를 증정하는 한편, 과학기술계와 정·관계의 친선·유대강화 및 국가발전에 과학기술인들이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참여정부 입각인사로는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13명의 전·현직 장관, 17대 국회에 당선한 의원 11명 등 모두 24명이 참석했다. 김시중 과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인은 60, 70년대 경제부흥을 이끌었고 오늘날에도 정보기술(IT), 조선 등 각 분야의 산업을 이끌고 있다”면서 “국민소득 1만달러에 발목잡혀있는 국가를 과학기술인이 중흥시키고 선도해 후손에서 물려주자”고 제의했다.

이어 김시중 회장은 참여정부 입각인사 및 국회의원 24명에게 “우리 500만 과학기술인은 귀하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글귀를 새겨넣은 축하패를 전달했다. 축하패를 받은 의원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명 장관과 진대제 장관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짝막하게 인사를 했고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많은 과학기술인이 정부에 입각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더이상 과학기술인이 외롭지 않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기술고시 출신 1호 장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축하패 증정에 이어 민관식 과총 명예회장이 80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회관건물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건배하자” 외치자 이날 축하연은 절정에 달했다.

오명 장관은 격려사에서 “500만 과학기술인의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적다”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숫자에 비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의 국회진출을 위해 적극 밀어달라”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과학기술인들은 “이처럼 많은 고위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김명자 김선미 김춘진 우원식 이영호 장복심 제종길 홍창선(열린우리당) 김석준 서상기 안명옥(한나라당) 의원과 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우)이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명 과기부 장관,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 허상만 농림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곽결호 환경부 장관,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임상규 과기부 차관, 권오갑 전 과기부 차관, 김창곤 정통부 차관,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김태유 전 대통령정보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중국 연변족과기협회와 과학기술협력관계 모색**



왼쪽부터 황상규 연변조선족자치주과학기술관 관장, 고재학 연변주과학기술협회 주석, 김시중 과총회장, 이육환 총장대행

지난 6월 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시중 회장은 연변주 과학기술협회 고재학 주석과 황상규 연변조선족자치주과학기술관 관장을 만나 양국

간에 과학기술협력과 교류를 계속 추진키로 협의했다.

**부총리로 격상되는 과기부, 큰 폭의 기구 개편**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는 과학기술부는 대대적인 내부기구를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확대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장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기부가 추진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부 총리 산하에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갖는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초과학·우주·원자력·과학문화 및 인프라·국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집행조직으로 이원화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조정·평가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과기부 조직은 응용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하고 특정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순수기초과학, 우주개발, 원자력기술, 과학문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맡을 계획이다.

과기부는 아울러 현재의 과학기술정책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의 대부분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넘기는 대신 차관보 자리를 신설하며 과학기술기반, 원자력, 우주개발, 국제협력, 기초연구개발 등의 5국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과 직제개편안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주 과기부, 교육부, 산자부로부터 과기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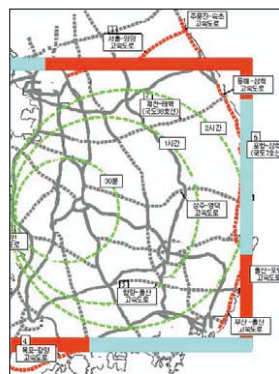
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과학 관련 인터넷사이트 및 콘텐츠 공모**

'대한민국 과학콘텐츠대상'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양질의 과학콘텐츠와 이를 서비스하는 운영매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핵심자원인 과학 콘텐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과학콘텐츠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청소년과 일반인이 과학 정보를 쉽게 접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국립중앙과학관은 '사이언스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우수한 과학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과학적 내용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와 인터넷 사이트를 공모, 선정하는 국내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과학콘텐츠대상'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적 내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를 선정하는 '매체운영'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창작 과학콘텐츠를 공모하는 '순수창작'의 2개 분야, 등 총 8개 부문에서 10월 11일(월)까지 사이언스올(<http://www.scienceall.com>)을 통해 신청받는다.

**5년내 실리콘밸리 능가할 클러스터 2~3개 육성**



'모자형 국토순환도로망'

앞으로 5년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2~3개의 세계적인 '한국형 클러스터'가 육성되며, 각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성장기반 구축으로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획기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시화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전국도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모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이 구축되며, 수도권인구 증가세가 안정화된다. 정부는 6월 1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국가의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혁신수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의 4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지역별 발전과제로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같은 일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기반 조성에 주력, 향후 15년내에 2~3개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구축하며, 오송을 바이오도시 모델로 건설하는 동시에 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등 6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산업 클러스터화하기로 했다.

서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키우며,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통로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 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 접근이 가능토록 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해 동, 서, 남해 3개 '연안축'과 동서고속도로 등 '북부축'을 연결하는 'ㄷ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44조5천349억 원과 14조4천573억 원의 지방비 등 모두 66조5천732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10조8천562억 원을 배정기로 하는 등 해마다 9.5% 증가한 수준에서 재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정과제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획은 균형발전의 정책 방향과 틀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합의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과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수립과 달리 이번 계획이 각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신청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 성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수도권은 질적으로 도약하고 지방은 발전을 이뤄가는 상생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우석·문신용 교수 등 11명 정부포상 수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서울대 황우석 교수, 문신용 교수 등 연구팀 11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낮 청와대에서 황우석(黃禹錫)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노 대통령은 황우석 교수와 문신용 교수에게 과학기술인 최고훈장인 창조장과 혁신장을,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서울대 이병

천 교수에게 도약장을, 서울대 안규리 교수와 강성근 교수에게는 진보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한 한양대 황정혜 교수에게는 과학기술포장을, 미즈메디병원 박종혁 연구원 등 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상자 11명 이외에 37명의 연구팀원과 오찬을 함께 하며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요즘 한국이 희망이 없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과연 한국이 세계일류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여러분이 믿음을 심었다"고 말했다.

## 기초의과학연구센터 개소식



과학기술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구강 악안면 경조직 재생 연구센터(소장 김경남)'를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지정하고 향후 9

년간 동 연구센터를 지원기로 했다. 동 센터는 6월 8일(화) 연세대 구내에서 과학기술부 임상규 차관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정창영 총장, 한국과학재단 권오갑 이사장, 그밖에 각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Medi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enter) 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으로 과학기술부는 '02년 11개, '03년 4개 등 총 15개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05년까지 총 20개 센터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신규 5개 센터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ST**

정리\_ 이재성 기자 jsl@kofst.or.kr